

이찬진 “오지급 코인, 반환대상”… 정치테마주 등 조사 강화

(금감원장)

금감원 감독기조 전면 재정비

검사·제재 혁신 등 15대 핵심과제
소비자보호, 최우선 가치로 확립
가상자산 인허가 리스크까지 경고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금융(IB) 부문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금감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속 금융시장 안정성을 흔들림 없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5대 전략목표(쇄신·신뢰·안정·상생·미래)를 바탕으로 검사·제재 혁신, 불공정거래 엄단, 민생금융범죄 척결, 디지털 감독 강화 등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빗썸 사고, 특사경 인지수사권, IMA·발행어음 인가 등 시장 현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업무계획의 ‘집행력’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 “유령코인이 거래됐다”… 빗썸 사태에 가상자산 감독 전면 수정

이 원장은 빗썸 오지급 사고를 두고 “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상자산거래소 정보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단순 전산 실수가 아니라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거래소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취약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시장이) 레거시화(제도권 편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소 입장에서) 인허가 리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게하는 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이 부분이 규제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당초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거래소 내부통제와 시스템 검증체계가 입법·감독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 때 강력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지급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반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며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지급 코인을 매도해 현금화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재앙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고 당시

보다 상승한 만큼 원물 반환 시 추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이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담당 인원이 20명이 채 안 되고, 그나마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작업에 집중 투입돼 있다”며 인력 구조의 한계도 털어놨다.

◆ 특사경 인지수사권 ‘통제장치’ 윤곽… “핵심은 48시간”

업무계획의 또 다른 축은 불공정거래 근절과 시장질서 확립이다. 금감원은 기업금융(IB), 정치테마주, 신규사업 가장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신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제도인 ‘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통제장치도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불법사금융 분야 특사경 도입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범위 확대는 불법사금융까지만 우선 적용된다. 보험사가 가상자산 등 다른 민생범죄나 회계감리·금융회사 검사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유보됐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 외에는 금감원의 특사경 확대를 불편해하는 기관이 있다”며 “서로 한 술에 배부르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인지수사 통제장치로는 수사 착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수사 개시 이후에는 검찰 지휘와 영장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부질없는 일”이라며 “핵심은 48시간 내 결론을 내지는 것, 수사 신속성”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장사 감리주기 단축도 본격 추진한다. 현행 감리주기가 약 20년에 달해 회계 부정을 억제하는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코스피200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0%(20사)를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감리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까지 주기를 더 줄이는 로드맵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한다.

금투업계가 주목하는 IMA·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금융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제재와 인허가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험자본 관점에서 인허가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사명으로 삼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감독을 하겠다”며 “민생금융범죄와 불공정행위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證, 작년 세전이익 2조… 70% 꺾충

순이익 1조5936억·ROE 12.4%
뉴욕법인 2142억 ‘사상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은 2025년 연결기준 세전이익이 2조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1조5936억원, 영업이익은 1조9150억원으로 각각 72%, 61% 늘었다. 연 환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4%로 3분기 연속 10%대를 유지했다. 총 고객자산(AUM)은 602조원(국내 518조원, 해외 84조원)으로 1년 만에 약 120조원 증가했다.

해외법인은 글로벌 비즈니스 개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지난해 대비 약 200% 증가한 4981억원으로, 전체 세전이익의 약 24%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 제시했던 ‘2030년까지 해외법인 세전이익 5000억원’ 목표에 1여년 만에 근접한 것이다.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모두 사상 최



서울 을지로의 미래에셋센터원 /미래에셋증권

대 성과를 냈으며, 특히 뉴욕법인은 사상 최대 실적인 2142억원을 기록했다.

PI(자기자본투자) 부문은 4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며 약 645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다. 이는 해외 혁신기업 가치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전문기업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이스X, x.AI 등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며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부문도 모두 사상 최

대 실적을 달성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대비 43% 증가한 1조110억원, 금융상품판매 수수료 수익은 21% 증가한 3421억원, 트레이딩 및 기타 금융손익은 14% 증가한 1조2657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자산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5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한 해 동안 DC 시장 유입액의 19.1%에 해당하는 4조4159억원을 유치하며 전 금융업권 DC부문 순위가 2024년 4위에서 2025년 1위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미래에셋3.0’ 비전을 선포하며 새로운 금융의 문을 열고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토큰증권 제도 개편에 대응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글로벌 자산관리 원(One) 플랫폼 구축과 자산토큰화·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허정윤 기자

상품별로 수시형은 세전 연 2.50% 금리가 적용된다. 약정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세전 연 2.30%에서 3.30%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2030 특판 상품 금리는 세전 연 4.0%이며, 대상 고객은 만 15~39 청년이다. 200억원 한도이며, 한도 소진 시 판매는 조기 종료된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투자증권, 첫 발행어음 출시

2030 특판상품, 세전 연 4.0% 금리

신한투자증권이 첫 발행어음 상품인 ‘신한Premier 발행어음’을 9일 출시했다. ‘신한Premier 발행어음’은 신한투자증권이 직접 발행하는 1년 이내 만기의

어음으로, 약정한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신한투자증권은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을 내세워 수시형, 약정형, 특판형 상품을 선보였다. 상품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며, 개인고객 대상이다.

한양증권, 기관전용 사모펀드 GP 진출

GP 기반 스케일업·수익 모델 확장

한양증권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PEF GP) 등록을 마치며 프라이빗에쿼티(PE)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한양증권은 PE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등록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 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가치제고·지배구조 개선 등 실질적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기업 지분증권·메자닌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한양증

권은 사모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핵심주체인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한양증권의 GP 운용 모델은 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유망 기업 발굴,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자산 운용’, 투자 성과에 따른 수익 분배와 관리보수를 수취하는 ‘수익 배분’ 단계로 구성된다. 한양증권은 이번 등록을 통해 운용 영역에 기관전용 PEF를 추가했다.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스케일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반도체 TOP10 ETF’ 순자산 5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최대 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반도체 TOP10 ETF’의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반도체 TOP10 ETF’의 순자산은 지난 6일 기준 5조 3257억원으로, 국내 주식 테마형 ETF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8,695억원으로 테마 ETF 중 1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수익률은 39.58%로 코스피 지수 상승률(20.76%)을 크게 상회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 ‘루빈’이 이전 세대 대비 약 50% 증가한 메모리 용량을 요구하며 HBM4 수요를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확대가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TIGER 반도체 TOP10 ETF는 올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23.9%, 30.2% 비중으로 편입하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10종목에 투자한다. 국내 반도체 ETF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